

2016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정보 - 사회 ·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

이제연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사회사업팀

Social Welfare Information for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Jea Yeon Lee

Medical Social Worker, Social Work Team,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Chuncheon, Korea

Abstract

Recently as indicated by the various media,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are constantly increasing. It has been a heavy burden on socio-economic aspects. Diabetes is closely related to decreased quality of life by complications. In particular,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people with diabetes were to have a negative effect in diabetes management. It is the role of the diabetes educator to help patients with diabetes by providing an economic support welfare information to help manage the disease.

Keywords: Diabetes mellitus, Social welfare

서론

2015년 대한당뇨병학회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2006년 5.6% (165만 명)에서 2010년 7.1%, 2013년 8% (272만 명)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여러 논문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혈당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동반되는 당뇨합병증이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2].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당뇨병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삶의 질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성, 연령, 교육수준, 보험유형, 가구소득, 당뇨질환 외래 진료비, 기타 질환 외래 이용 건수 등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고

Corresponding author: Jea Yeon Lee

Social Work Team,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77 Sakju-ro, Chuncheon 24253, Korea, E-mail: jy0305@hallym.or.kr

Received: Nov. 5, 2016; Accepted: Nov. 13,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6 Korean Diabetes Association

보고되었다. 특히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병원방문의 편의성 및 당뇨병성 합병증 관리의 기회 증가, 여러 사회 문화적 혜택 경험 증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3].

3차 병원에 내원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1년간의 평균 치료, 관리비용의 산출 및 합병증 별 관리 비용에 대한 후향적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합병증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1,184,563원이었고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군에 비해 미세혈관 합병증만 있는 경우 의료비가 4.7배 상승하며, 대혈관 합병증만 있는 경우 10.7배,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8.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병증의 종류에 따라 의료비용의 상승이 큰 합병증은 신장이식군으로 23.1배로 가장 높았고 투석치료군이 21.1배, 관상동맥질환으로 PTCA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나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를 받은 경우 12.4배, 하지 절단술을 받은 경우 11.8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렇듯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적 또는 국가적으로 많은 부담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은 합병증 악화로 장애가 남을 경우 치료유지에 제약이 생기며, 사회 문화적 혜택 경험 감소 등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당뇨병 환자와 환자가구는 질환관리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 교육자는 환자들의 치료유지의 방해요인이 되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측면의사회복지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당뇨병 교육자가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당뇨병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안정적 환경에서 자가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정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본론에서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제도, 당뇨병 또는 그에 따른 합병증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의료비지원제도, 의료비 이외 생계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 공적지원제도,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국민건강보험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5]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대부분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지원제도가 대부분이다. 2015년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에 대해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로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 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 인슐린 투여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지원내용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100% 지원
- 기준금액: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등록 및 지급 절차
 - 〈등록〉
 - ①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②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직접제출
 - 〈지급〉
 - ①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발급
 - ②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③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2. 공공기관 의료비지원제도 · 장애인등록제도

당뇨병 또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의료비 지원제도와 장애인등록제도를 안내하고자 한다.

1) 공공기관 의료비지원제도

①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6]

갑작스러운 중환질환 등으로 병원비 부담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대상: 중환질환, 부상 등으로 수술적 치료 및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3,293,576 원/월)
(기준 중위소득: 총 가구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지칭)
 - 재산기준: 대도시 기분 1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의료비지원
- 지원제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증명료 발급료 등 비급여항목
- 신청: 퇴원 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②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7]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대상: 암, 심장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화상 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당연 선정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 소득 80% 초과 120% 이하인 가구의 경우 1회 발생한 의료비가 연간소득대비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청
- 재산기준: 2억 7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5년 미만 3,000 cc 이상 자동차 제외

• 지원내용:

- 의료급여·차상위 계층: 1회 발생한 본인부담금·의료비가 100만원 이상 발생 시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1회 발생한 본인부담금·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 시
-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120% 이하: 1회 발생한 본인부담금·의료비가 연소득 30% 발생 시
- 최대 180일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70% 차등지원되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가능(단, 특실료, 임의비급여 제외)
-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문의 가능

③ 장애인등록제도[8]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등록을 통해 생활안정, 활동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안면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정신장애
- 지원내용: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의료비지원, 자립자금 대여, 보조기구 교부 등), 장애인 편의 증진, 복지부 이외 기관 시행 장애인 복지사업(장애인 차량관련, 소득세, 각종 세금 및 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 감면 혜택 등)
- 등록절차: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거주지 주민센터)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접수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3. 민간기관 의료비지원제도

최근 민간기관에서도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지원 제도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실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많이 활용하는 지원제도를 위주로 안내하고자 한다.

1)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9]

당뇨합병증(ex. 만성신부전 등)으로 인해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한시적 의료비지원제도이다.

- 대상: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에 고시된 질환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이하 및 최고 재산액 250% 이하인 환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입원, 수술비 및 회귀의약품), 외래·재활치료비 및 검사비는 최대 100만 원 한도 지원
- 신청: 협약병원 사회복지팀,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2) 한국실명예방재단 의료비지원사업[10]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안과수술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수술비를 지원하여 수술 후 정상시력을 회복하여 건강한 눈을 유지하고 삶에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이다.

- 대상: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환자
- 선정기준: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기준에 적합한 환자(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 순위로 지원)
- 지원내용: 안과수술 및 수술에 준하는 시술관련 사전검사비 1회, 1인당 1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절환: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4. 공적지원제도

당뇨병 또는 합병증의 유병기간이 길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또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공적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1]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 선정기준: 급여별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급여별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 수급권자로 선정
- 지원내용: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를 지원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12]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과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195,717원/월)
 - 부양의무자(부양요건)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부모, 아들, 딸, 사위며느리)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경감/건강보험료지원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13]

생활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다.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 가구로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 지원내용: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4]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

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대상
 -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한 분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지원내용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이용료)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비용)
 -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 요양비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이 있으며 등급별로 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신청 후 30일 이내) → 결과 통지 → 서비스 이용

결론

본 고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들 중에서 특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제도들을 소개함으로써 복지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현장에서 만나는 당뇨병 환자들 중에는 유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이 발병하여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 중단 위기에 놓인 환자들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5년 11월 당뇨병 소요성 요양비 지원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자들이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당뇨병 교육자에게는 환자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평가

하여 앞에서 소개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환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당뇨병 관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Byun SH. A structural modeling for quality of life with diabetes: associated with diabetes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oping strategy. Gimhea: Inje University; 2016. p1-2.
2. Korea Diabetes Association.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5. Seoul: Korea Diabetes Association; 2015.
3. Lim JH, Oh CS. Medical care utilization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diabetes mellitus patients. J Digit Policy Manag 2013;11:609-18.
4. Hwang JA, Park TC, Jung SH, Kim HJ, Kim DJ, Kim SH, Nam MS, Kim TH, Lee MK, Lee KW. Direct medical costs of type 2 diabetic patients in the tertiary hospital. Korean Diabetes J 2008;32:259-68.
5.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vailable from: <http://www.nhis.or.kr/bbs7/boards/B0040/15512> (updated 2015 Nov 9).
6. 2016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Projects.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 (updated 2016 Jan 21).
7. 2016 medical support project for Patients with severe disease. Available from: <http://www.nhis.or.kr/bbs7/boards/B0040/16032> (updated 2015 Dec 29).
8. 2016 The Disabled Welfare Information. Available from: https://www.129.go.kr/info/info04_view.jsp?n=621 (updated 2016 Apr 1).
9. Life Insurance Philanthropy Foundation. Available from: http://www.lif.or.kr/renew/service/service_rare_1_1.asp.
10. Korea Foundation the Prevention Blindness. Available from: http://www.kfpb.org/comm/board.php?bo_table=doc_pds.
11. 2016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vailable from: https://www.129.go.kr/info/info04_view.jsp?n=441 (updated 2016 Jan 5).
12. 2016 health policy change from Medicai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29996&page=1 (updated 2016 Feb 15).
13. 2016 Basic security system of Seoul-type. Available from: <http://welfare.seoul.go.kr/archives/19203> (updated 2015 Dec 31).
14. Long-Term Care Insurance. Available from: <http://www.longtermcare.or.kr>.